



보도참고자료

(배포) 2018.11.21.(수)

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	
담당	외교부 중동1과	과 장 윤영기 (02-2100-7480) 서기관 한우용 (02-2100-7481)
	금융위원회 은행과	과 장 전요섭 (02-2100-2950) 사무관 서지은 (02-2100-2954)
	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	국 장 권창우 (02-3145-7050) 팀 장 김준환 (02-3145-7060)
	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	국 장 홍 길 (02-3145-7200) 부국장 박영규 (02-3145-7205)
	은행연합회 은행경영지원부	본부장 김평섭 (02-3705-5150) 부 장 김수연 (02-3705-5415)

국내 거주 이란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관련

□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와 무관한 국내 거주 이란 국민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이란 측을 접촉하는 각종 계기*에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

* 우리 정부 관계자의 이란 방문 (11월 초), 외교부 주최 주한 이란인 유학생 대상 간담회(11.9) 등 계기 활용

○ 아울러, FATF* 국제기준 및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 신분, 자금출처 등과 관련하여 강화된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란 측에 설명하고 있습니다.

*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(Financial Action Task Force): 185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결정기구 (한국은 2009.10월 정회원 가입)

- 한편,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적 민간인의 일상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은 제한 대상이 아님을 은행에 공지 하였습니다.
- 또한, 이란인들의 금융거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‘금융애로 해소 체계’를 구축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.
- 주한이란대사관을 통해 접수된 이란인들의 금융거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·은행연합회가 은행들과 함께 개별 사례별로 애로 원인을 파악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, 금융위·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란인들의 금융 애로 사항을 보다 가까이서 청취·해결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국내 이란인 대상 ‘전용 연락망’을 운영하여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금융기관의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.

< 국내 거주 이란인 금융애로 전용 연락망 >

금융감독원	은행연합회
☎ 02-3145-7064 (시중은행) ☎ 02-3145-7206 (지방/특수은행)	☎ 02-3705-5332

* 운영시간 : 평일(공휴일 제외), 09:00~18:00

-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이란인 등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. 끝.